

재활승마의 오늘과 미래, 나흘간 머리 맞댄다

전 세계 재활승마 전문가 대회 참석
각 세션별 회의 온라인 채널 생중계
가상현실 승마 시뮬레이터 등 눈길



제17회 세계재활승마연맹(HETI) 세계대회가 7~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주제는 '와이드 더 스펙트럼'. 전 세계에서 800여 명의 재활승마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한국마사회(회장 김우남)와 대한재활승마협회(협회장 김연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7회 세계재활승마연맹(HETI) 세계대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막을 연다.

세계재활승마연맹은 재활승마 관련 학문적 성과와 경험, 기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1980년 설립된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 단체다. 이번 세계대회는 '와이드 더 스펙트럼'(Widen the Spectrum, 스펙트럼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전 세계에서 약 800여 명의 재활승마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동안 이룬 다양한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세계대회에서는 다섯 번의 전체 회의와 12개의 분과회의가 열린다. 교육 분야별로 관련 토의와 원탁토론 등도 진행된다. 각 세션별 회의를 비롯한 전 과정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해 대회 등록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다.

개막식이 열리는 8일에는 '새로운 시대(New era)'라는 주제로 첫 번째 회의와 재활승마 용어 정립에 대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본회의에서는 김연희 대한재활승마협회장과 신나 마틸라 라우티아 이넨 HETI 회장이 사회를 맡는다. 뉴욕 주립대 마카렛 맨스필드 부교수, 샌트럴

미시간 대학교 데이비 실크우드 셔러 물리치료학과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선다.

●10일, 가상현실 등 재활승마 미래 논의
첫째 날인 9일 오후 3시부터 이번 세계대회의 주제인 '스펙트럼의 확장'과 관련한 본회의가 열린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유숙 교수와 아일랜드에서 재활승마를 제공하는 '페스티나렌테 엔터프라이즈'의 CEO 질 카레이가 사회를 맡는다.

유발 네리아 컬럼비아 대학 정신의료센터 교수가 'PTSD 환자를 위한 보조요법: 임상과 신경 영상 근거'라는 테마로 발표를 한다. 아동 정신건강 및 뇌이치로 전문가인 트레이시 파 톨슨은 '재활 승마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오후 4시30분부터는 HETI 사무국 주

관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2024년에 열리는 제18회 HETI 대회 주최국인 헝가리의 재활승마 관련 기관장의 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도 다양한 회의와 토론회가 계속된다. '말 복지'(Equine Welfare) 분과회의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말 복지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기대를 넘어'(Beyond the expectation)라는 주제의 마지막 심포지엄에서는 뇌성마비 어린이 재활에 활용된 가상현실 승마 시뮬레이터를 소개하고, 가상현실에서 말을 이용한 재활과 치료법 등 '재활승마의 미래'를 논의한다.

세계 HETI 회원국들이 참여한 총회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며 각국의 재활승마 현황을 공유하는 대표자 토론회를

폐회식 전 마지막 행사로 실시한다.

나흘간 이어지는 회의와 토론 이외에도 현장에서는 학술연구 포스터와 재활힐링 프로그램 소개 및 해외 주요 사례집 등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가 전시된다. 해외 유관기관과 재활의학관련, 말산업 관련 업체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한 홍보 부스가 운영돼 다채롭게 채워질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세계재활승마연맹 세계대회는 재활승마라는 말과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대중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라며 "스펙트럼의 확장이라는 주제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소개하는 연구결과를 오프라인으로 접할 수 있어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제10회 말산업 국가자격 필기시험 5일 실시

한국마사회는 5일 제10회 말산업 국가자격(3급) 필기시험을 서울과 제주에서 실시한다.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은 2012년 시작해 지난해 9회까지 총 772명의 말산업 현장인력을 배출했다. 자격시험 분야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3개 종목이다. 만 17세 이상에 특정한 제한조건만 아니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말조련사는 말의 능력 향상 등 조련 업무를 담당하며 장제사는 말발굽 깎기 등 장제업무를 수행한다. 재활승마지도사는 승마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직업이다. 필기시험에 이어 8~10월 사이에 실기시험을 실시한 뒤 1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코로나19 관련 시험 진행 및 변동사항 등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박물관, 유아보육 사회시설 놀이교재 제공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이 보육원을 대상으로 놀이형 학습자료를 무료 제공한다. 이번엔 배포하는 키트는 종이말 만들기 및 색칠공부 그리고 말에 대한 정보를 일러스트로 설명한 활동지 '내 친구 말' 등으로 구성했다. 활동지는 말의 키와 몸무게, 먹이, 마구, 세계의 말 품종, 말의 하루를 볼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다. 4~8세의 어린이가 있는 보육원과 아동일

시보호소 등 전국 사회시설과 기관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메일로 시설명청과 해당 연령의 아동 인원, 시설 주소, 담당 교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면 된다. 신청은 10일까지도 선착순 30개 기관에 18일까지 키트를 배송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오문식 전 조교사 '그랑프리 도전과 우승' 특강

경마아카데미 기수후보생에게 조언

한국마사회 경마아카데미는 5월 29일 오문식 전 조교사를 초청해 기수후보생들에게 특강을 실시했다.

오문식 조교사는 현역시절 대상 경주에서 14번이나 우승했으며 그랑프리 우승의 영광까지 안았던 부경의 대표 조교사다. 오 조교사는 1976년 기수로 경마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조교보 생활을 하다 2004년 부산경남 경마공원 개장과 함께 조교사로 데뷔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 원년 멤버로서 17년간 조교사 생활을 한 후 지난해 은퇴했다. 특히 국산 최강마라 불리는 경부대로를 길러 그랑프리(GI)를 비롯한 대상경주 6번의

우승을 만들어내 '경부대로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했다.

이날 특강에서 오 조교사는 명마 경부대로의 데뷔부터 최고의 경주마를 향한 도전과정을 중심으로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경주마 이야기와 향후 기수 생활에서 필요한 직업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서울과 다른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특징, 인생 선배로서의 인생관 등 같은 길을 먼저 갔던 선배만이 들려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며 기수 후보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강에 참여했던 서강주 기수후보생은 "경부대로와 조교사님의 도전과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며 "경마아카데미에서 실력을 갈고닦아 한



"선배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오문식 전 조교사(왼쪽에서 6번째)와 기수 후보생들이 주먹을 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경마에 한 획을 긋는 기수가 되고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마사회 경마아카데미에서는 지난해부터 문세영 기수, 환관식 기수, 하재홍 전 조교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한

국마사회 관계자는 "새내기 기수후보생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또 향후 기수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명사 특강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출덤

최동호씨 제3회 KPC 대회 우승...KMGM 로드샵 오픈 주인공 됐다

약 2달간 예선전 통과자 이틀간 본선 KMGM 내부 3·4층 방역 시스템 눈길 이석영 대표 "홀덤 문화 정착 힘보탤 것"

전국 최고의 홀덤 플레이어라 불리는 제3회 KPC(Korea Poker Championship) 대회의 'KPC OB Monsters Stack' 부문이 5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KMGM 부산 사상점과 문현점에서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는 약 2달 동안 전국 100여 개의 KMGM점 지점에서 진행된 예선전을 통과한 선수들만 초대권을 획득했다. 29일 첫 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

황에 맞춰 각 지점 수용인원 이내로 나눠 경기를 진행했다. 첫날 일정을 통과한 선수들만 둘째 날 대회에 출전했고, 파이널 경기는 RFID 테이블에서 '유튜브 어수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KPC OB Monsters Stack 부문 우승은 '난 나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최동호 씨가 차지했다. KMGM 플레이어인 최씨는 우승 부상으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KMGM 로드샵 매장 오픈의 기회를 얻게 됐다.

이번 대회가 열린 KMGM 부산 사상점과 문현점은 3~4층의 방역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모든 선수들은 체온 체크와 QR 코드 확인 후 입장했다. 대회장에는 선수 외 일반 팬들의 출입을 통

제했고, 내부 면적에 맞는 적정 인원만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테이블에 앉은 선수들 사이에는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손 세정제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울였다.

이석영 KMGM 대표는 3일 "홀덤을 하나의 스포츠문화로 만들어 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속에서 앞으로 열릴 대회도 방역을 제1의 가치로 두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덧붙여 "대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 철저히 배제하고 감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KMGM은 홀덤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건전한 스포츠로서 홀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객원기자 revolej@hanmail.net



KMGM 플레이어로 활약하는 최동호 씨(앞)가 제3회 KPC OB Monsters Stack 부문에서 정상에 올랐다. 우승 후 KMGM 이석영 대표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최씨.